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9호 【루계 제25933호】 주체107(2018)년 2월 2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에서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자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집중강연선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불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와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정초부터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달려나간 수백명의 강연강사들은 지금까지 매일 3차이상 연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진행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특히 집중강연선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신의주마이싱공장, 신의주광산기계공장 당조직들에서는 비범한 령도와 정력적인 헌신으로 나라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섰데 대한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 실효를 높이였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석탄증산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지하막장으로 옮기고 탄부들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되새겨주면서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강연강사들과 함께 들끓는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집중강연선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키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간 강연강사들은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내용의 강연선전활동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이들은 또한 도안의 시, 군의 농촌들에 나가 작업반과 분조들을 순회하면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매일 3차이상 진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신의주시안의 강연강사들은 시안의 협동농장들의 분조들에까지 들어가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는 집중강연선전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리였다. 이들은 농업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비상한 자각을 안고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염주군안의 공로자강연강사들은 지난 기간 강연선전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킨 기세로 남암, 내중협동농장의 우렁이유기농법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룡천군과 철산군의 강연강사들도 지난해 농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높은 자각을 안고 농사차비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의 협동농장로전들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집중강연선전활동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키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 집중강연선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집중강연선전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수준이자 강연의 실효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으로 달려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강연선전을 힘있게 벌렸다. 이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실정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그날 거름실어내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력성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선전을 벌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은률군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도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선전을 벌리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자는 이들의 강연선전은 설득력이 있고 호소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 흙물길건설장들에서도 집중강연선전이 본때있게 벌어졌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당의 농업정책선전을 강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자료들과 해설담화자료, 특화련점물들을 도의 실정과 농업근로자들의 심리에 맞게 만들어 시, 군들에 내려보내주어 농업정책선전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또한 도, 시, 군당일군들이 농업정책선전을 위한 활동정형을 료해하고 긍정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농업정책선전에 필요한 물류려를 비롯한 기재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도록 하였다.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당의 농업정책선전이 본때있게 벌어져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안악군과 배천군의 강연강사들은 작업반과 분조들에 들어가 지난해농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집중강연선전을 참신하게 벌려고있다. 청단군, 삼천군, 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의 강연강사들도 강연선전을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을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허천강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 무진강발전소와 장자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와 서두수발전소, 남강발전소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높이 세운 1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2월에도 일정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발전설비들을 질적으로 정비보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10여대의 수차발전기와 30여대의 변압기, 차단기대보수과제를 완수하는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수력발전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은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높은 효률운전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하며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높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을 질적으로 정비보수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효률높은 새 수차들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마련하며 현대적인 수자식력자기와 조속기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수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전달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허천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발전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장진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변압기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장자강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높은 효률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전력생산실적을 부쩌 높이고있다.

남강발전소와 서두수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도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매일 맡겨진 전력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각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동시에 발전설비들을 질적으로 정비보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수풍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 회천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차발전기와 변압기, 차단기를 비롯한 설비대보수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서두수발전소와 삼수발전소, 위원발전소와 태천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보수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와 금야강군민발전소, 남강발전소와 무진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발전설비들에 대한 보수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전력공업성적인 력량이 집중된 속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력발전설비제작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효률높은 새 수차들을 빠른 시일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더 생산

산림부문에서

산림조성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경제적가치가 큰 나무모생산을 내밀어 전국적으로 올해 봄철나무심기에 쓰일 나무모를 지난해보다 수억그루나 더 확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진 도시로 전변시켜나갈 일념안고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말겨진 봄철나무모생산계획을 116%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순안, 형제산구역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은 거름생산과 기질보장을 선행시키고 용기모에 의한 생산을 비롯한 선진적인 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잣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실적을 1.2배이상 끌어올리였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밑에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계획보다 수천만그루를 더 생산해냈다.

자강도, 함경남도의 근로자들이 전선에 총포탄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강계시, 전천, 송원군에서는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나무모생산지를 산가까이에 접근시키고 숲사이양묘장들에 자연관수체계를 도입하여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나무모들을 키워냈다.

신포시, 리원, 정평군의 근로자들은 평화질석을 리용한 영양단지와 수지용기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 등을 받아들이고 병충해방지대책을 세워 튼튼한 나무모들을 쌍쌍 생산해냈다.

송화, 연탄군을 비롯한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 라선시의 양묘장들에서도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나무모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는 생산방법을 적용하여 실적을 올림으로써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화력탄보장에서 련일 혁신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나라의 생명선인 전력생산의 숨결을 지켜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화력탄보장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대고조전투장들에 활력을 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대로 굴진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망이 좋은 채탄장을 마련해가고있다. 이와 함께 이미 마련되여있는 탄밭들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설비와 자재, 부속품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탄차보수를 제때에 하고 탄차베아링보장사업에 힘을 넣어 운반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게 하고있다. 또한 동발나무보장이자 석탄생산이라는 관점에서 탄광들에 부족되는 동발나무를 원만히 대주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그리고 탄광과 갱, 채탄중대들과 굴진소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앞선 단위에서 창조된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득장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탄광일군들은 갱막장을 라고앉아 탄부들과 어울려 일하며 사회주의불빛, 당중앙의 불빛을 지켜가는 진초병답게 화력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고 하면서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1갱의 탄부들은 더 많은 석탄을 캐내여 전력생산기지에 보내주기 위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6갱과 2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한몫이 그대로 동발나무가 되고 탄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증산의 동음만은 멈출수 없다고 하며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특히 6갱의 탄부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채탄장부하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탄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이들은 작업굴진에 힘을 집중하여 생산적앙양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2갱의 탄부들은 9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으로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명학탄광과 룡산탄광에서 집단적혁신의 열풍이 일어번지고있다.

탄광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증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다. 탄상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방법과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막장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비상한 각오밑에 그날 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해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전차운전공들도 단위시간에 더 많은 석탄을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련합기업소의 병기창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차륜을 비롯하여 탄차부속품들과 소공구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진인불발의 의지로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물확보사업에 력량을 집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연안군과 염주군에서 관개용수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연안군에서

연안군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일군들은 물길가시기목표를 단계별로 정확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일군들부터 물길가시기전투장들에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달려나가 겨울철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가운데 천태, 발산리를 비롯한 군안의 여러 물길가시기전투장마다에서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그리하여 한달동안에만도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며 바닥파기를 진행하여 10여㎞구간의 물길을 확장하고 물통과능력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일군들은 또한 매달생산과 양수철판교체에 필요한 수십톤의 철판을 비롯하여 양수설비수리정비에 쓸 많은 자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다.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한 당의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 군판개관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용연료발동발전기를 적극 리용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백수십대의 양수설비수리정비를 진행하였다.

염주군에서

염주군에서 새 물길건설과 물길확장, 물길가시기, 양수설비수리를 비롯한 전투가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시기 농사를 통하여 관개용수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한 군일군들은 지난해말부터 진행하던 공사들을 올해에 들어와 더욱더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반곡협동농장과 주의협동농장, 룡북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염리해지 및 물부족지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근 10리구간의 새 물길건설과 물길확장공사목표를 높이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였다.

물보장이자 알곡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한 농업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열로 심장을 끓이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매일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수천정보의 포전에 대한 물보장을 맡고있는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전투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일군들은 양수설비수리정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자재와 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었다.

이에 고무된 해당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전동기수리와 함께 양수설비주물품과 부속품생산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철정광생산에 계속 박차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철정광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45만산대발파로 올해 철정광생산의 첫 포성을 울린 무산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중요전투현장들에 내려가 생산과 기술개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참모부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을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이 기관차가 되여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기술집단의 지도와 방조밑에 박토론베아사업소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설비와 부분품들을 보수정비하고 계속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로천채굴장실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같은 량의 연유, 전기를 가지고도 철광석생산량을 늘이고있다.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회전식착정기를 비롯한 대형설비관리를 짜고들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온광사업소와 차수리분공장의 일군들과 운전사들, 로동자들은 자검자수제계를 철저히 세우고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있다.

2지하과채광과 박토론베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합리화안들을 받아들여 대형천추형과쇄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건식직장에서는 과쇄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선광장에 질좋은 조광을 보장해주고있다.

2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선광계통들의 보수를 진행하면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력량은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많은 부분품들과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설비들의 정상운영에 기여하고있다.

정머리분공장, 공무분공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철정광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주체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여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더듬어보며

남호두!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느라면 조선혁명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회의가 진행된 경박호반의 귀틀집이 선히 어려오고 절세의 위인께서 펼쳐주신 혁명의 창창한 진로를 그려보이던 그날의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소리도 들려오는듯싶다.

더듬어보면 조선혁명의 력사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 승리해온 자랑찬 로정이다. 여기에서 남호두회의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이 회의는 조선혁명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벽하게 확립한 회의이다. 다시말하여 남호두회의는 주체의 기치를 확고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끈 력사적인 회의이다.

바로 여기에 남호두회의가 우리 혁명에서 차지하는 중대한 지위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게 되였다. 그런 의미에서 남호두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조선을 위해 투쟁하여야 하며 그것이 조선혁명가들의 당당한 권리로, 의무로 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확고히 견지하고 고수해오신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가르치신것처럼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민족과 조선의 삼천리강산을 떠나서 혁명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무의미한것이며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것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년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육성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위력한 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그리고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가 통일단결되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다져지였다.

국내외정세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롭게 앙양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였다.

당시의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녕안현 남호두 소자지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백두산장군의 주체의 신념, 자주의 넋이 맥박치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엄혹하고 준엄한 그때 주체의 기치를 드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과 국내깊이에로 진출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나가 먼저 국경지대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깊이에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데 대한 문제,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나서는 전략적방침들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밝히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주체적인 방침들이였다.

투쟁무대를 국경지대와 국내에로!

그것은 조국땅전역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지대로 선포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킨다는것은 곧 그것을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 강력히 추진시켜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해방을 성취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킨다는것은 바로 그것을 전국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하여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우리 당을 창건할수 있도록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조국땅우에 튼튼히 축성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무장투쟁도 통일전선운동도 당창건준비사업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 이것이 남호두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의 진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국해방성전을 조국에서 직접 벌려나가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념원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이 피바다속에서 일떠서서 손에 무장을 잡은것도, 조선인민혁명군이 설한풍 휘몰아치는 만주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포악한 일제와 관가리협전을 벌리고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무모한 칼부림속에서도 목숨으로 혁명적지조를 지켜낸 그 모든것도 결국은 조국진군과 조선혁명을 위한것이였다.

주체이자 애국이라는 철리와 견결한 민족자주의식, 숭고한 조국에로 충만된 남호두회의의 방침들은 회의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인민들을 조국해방성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를 조직진행하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남호두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라고 할수 있다고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새로운 리정표를 가지게 되였으며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일대 앙양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밝혀주신 주체의 기치따라 조선혁명은 시련을 박차고 승승장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그해 4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불패의 무장대오로 꾸려지고 5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였다. 가을에는 백두산대밀림지대에 새형의 혁명근거지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였고 그해말에는 국내에서 당창건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국내당공작위원회가 조직되여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인 고조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는 또한 승리자들의 잔치라고도 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승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인민과 력사와 시대앞에 아낌없이 바친 무수한 희생과 피와 로고의 대가로써 이루어진것이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의 과령파 조선공산당의 해산, 반《민생단》투쟁에서 범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오유로 하여 국제당에서도 경원시하고 형제나라 당들에서도 경원시하고 무분적이기는 하나 우리 인민들에게서도 경원시되던 조선공산주의운동은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난날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승승장구할수 있게 되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보무당당히 조국으로 진군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과감히 전개되였다.

엄혹한 환경속에서 주체의 기치높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자주의 신념으로 온갖 난관을 짓부시고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은 무강번영하는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혁명의 만년재보

곰 산 밀 영

곰산밀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의 하나이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가 활동하던 곳이다.

사자봉과 거의 같은 위도선상에 마주 솟아있는 곰산은 둥실하고 덩지가 큰 산이다.

곰산은 곰이 많이 나와 논다고 하여 곰노는 산이라고도 불렀다.

압록강의 험한 계곡을 끼고있는 곰산을 중심으로 하여 가파로운 비탈우에 자리잡은 곰산밀영은 그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아 밀영지로서는 알맞춤한 곳이였다.

곰산밀영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고 국내전공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다.

백두산을 지척에 둔 압록강기슭의 곰산 서남쪽골짜기에 자리잡고있다.

주체25(1936)년 11월에 건설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곰산밀영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가 들어가 활동하던 곳입니다.》

곰산밀영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조직건설사업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국내공산주의자들과 정치공작원들과의 련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명을 지닌 밀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천보전투가 있기 전인 주체26(1937)년 5월 하순 곰산밀영에 오시여 국내당공작위원회 제2차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당조직을 확대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서 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며 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곰산밀영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을 만나시여 실태를 료해하고 당면하게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기도 하시였으며 이곳 소부대의 활동을 지도해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 회의가 있은 후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서 우수한 정치일군들을 선발하시여 북선정치공작대를 무어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기능이 높아지고 북선정치공작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백두산지구와 무산, 연사지구를 포함한 북부조선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들이 확대되여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곰산밀영은 국내에서의 당조직과 그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고 당조직을 비롯한 전반적인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곰산밀영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는 학교로 되고있다.

곰산밀영은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며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평양 도착

【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폐막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2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고위급대표단은 개성을 경유하여 왔다.

고위급대표단을 판계일군들이 마중하였다.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전천군 읍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전천군 읍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아침모임시간과 영농전투의 휴식참을 리용하여 당보에 실린 위대성기사들에 대한 독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장원들에게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얼마전 제4작업반에 나간 한 일군은 당보에 실린 위대성기사 《하늘땅 끝까지》, 《장자산의 갈림길》, 《영원한 혼연일체》에 대한 독보사업을 실감있게 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20년전 1월 몸소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강땅을 찾으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고귀한 지침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은 작업반원들은 그리움과 충정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영농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내였다.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대중을 보다 큰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경 묵

일군의 참모습 — 원예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정과 열을 다 바쳐 사람들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해줌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과일나무나 꽃나무를 전문적으로 가꾸는 사람을 원예사라고 한다.

충실한 열매, 만발한 꽃을 그려보며 아침저녁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벌레도 잡아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과일나무, 꽃나무를 좀들어 키우는 원예사들처럼 일군들은 사람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에 충정다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지닌 그러한 사명으로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꽃을 가꾸는 원예사와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일군,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삶을 빛내여주기 위하여 진심을 다 바쳐 노력하는 일군이 바로 우리 당이 바라는 참다운 일군이라는 뜻이 담긴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이다.

일군들과 군중과의 관계가 지도하고 지도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정을 주고받는 동지적관계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지론이다.

일군들은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지니고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어야 하며 못난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두고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면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

원예사는 충실치 못한 꽃이라고 하여 버리는것이 아니라 만발하게 피여나도록 더 원심을 쓰며 가꾸고 자래운다.

일군들은 원예사의 그런 정과 열로 사람들을 아껴주고 품어주고 키워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품을 들이고 진정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일러주신 어느 한 녀성당일군은 바로 어머니심정, 어머니손길로 한 청춘남녀의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아름답게 꽃피워주었다.

잘못 살아온것으로 하여 흠이 많은 청년들이였다. 하지만 녀성당일군에게 있어서 그들은 끝까지 당과 운명을 함께 하여야 할 귀중한 혁명동지였고 낮이나 밤이나 원심을 쓰게 되는 상처입은 자식이였다.

그들을 위하는 자기의 걸음이 하루라도 늦추어지고 한시라도 더디여지면 청년들의 곡절많은 길이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는 생각으로 그 녀성당일군은 밤길도 많이 걷고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였다.

바로 이런 진심과 헌신으로 하여 그는 청년들의 친어머니가 될수 있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던것이다.

일군의 구실을 한다는것은 결국 사람들을 위하여 속을 썩일줄 알고 발이 닳도록 뛰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래사람들을 배워주고 이끌어주고 키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요구나 추궁으로 자기 사업을 대치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 인연이 없다.

뜨거운 심장으로 꽃을 사랑하는 원예사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동지로 귀중히 여기는 진심이 심장가득 차있는 일군은 자신의 열과 정을 다하여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도 없도록 보살펴준다.

일군들은 아래사람들중 누구에게서 결함이 나타나면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고 진심으로 고쳐줄 방도를 모색하여야 하며 진정을 바쳐 도와주어야 한다.

일군이라고 하여 저절로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또렷하게 해낼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다. 사람들을 뜨거운 심장으로 품지 않고서는 어머니구실, 원예사의 구실을 다할수 없다.

사람들을 위해 남보다 몇갑절 품을 더 들이고 속도 많이 썩일줄 아는 일군이 우리 당이 펼친 인민사랑의 화원을 만발하게 가꾸어나갈수 있는 원예사이다.

본사기자 량 순

공장, 기업소현대화에서 나서는 요구

지금 온 나라 그 어디서나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피땀바쳐 건설하여놓은 공장, 기업소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애국열의는 대단히 높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자면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남의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를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오늘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는 단순히 발전되고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 등을 받아들이는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삶,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적들이 발악할수록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우리 식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식의 공장, 기업소현대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우선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최대로 높이는 원칙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것은 공장, 기업소현대화에서 중핵이며 기본지표이다. 국산화를 떠난 현대화란 있을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화는 우리의 힘과 기술,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이다. 우리가 줄을 들어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팡팡 돌아가는 주체화된 생산기지로 만들고 나라의 자립적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려는데 있다.

우리 당은 오늘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손길아래 현대적으로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은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가 훌륭하게 실현된 공장이다. 이 공장은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튼히 갖추어놓아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에 쓰이는 가방천과 자크, 테프를 비롯한 원자재들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것들에 의거하고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질좋은 제품들이 우리 학생소년들과 인민들의 인기를 끌고있는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계급의 슬기와 창조적재능은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두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다.

국산화에 대한 인식에서 반드시 류의할 점이 있다. 국산화라는 개념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원료, 자재, 설비를 우리의것으로 보장한다는 식으로만 인식하여서는 안된다. 원료, 자재, 설비의 품질이 국제적기준에 도달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때보다 생산원가를 훨씬 낮추었을 때에만 실지 국산화하였다고 평가할수 있다. 량적장성에 치우쳐 질을 소홀히 하거나 질적지표가 보장되지 못한 대용품을 써서 제품의 질을 떨군다면 국산화한 의의가 없게 된다. 우리가 추진하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는 세계를 디디고 앞서나가기 위한것이다.

—또한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의 생산구조를 완비하는것이다.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드는 로력과 원자재, 에네르기를 줄이는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여도 모든것을 절약화하여야 하며 로력을 최대한 절약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모든것을 철저히 최적화, 최량화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설비를 받아들이는 그자체가 보다 적은 로력과 원가로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것이다. 지금 로력 및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의 생산구조를 완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전변된 많은 공장, 기업소들가운데는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자랑떨치는 류원신발공장도 있다. 이 공장에서는 로력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원료배합, 제단, 사출, 제화, 재봉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400kW능력의 태양빛발전체계를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새로운 랭난방체계를 도입하고 열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게 창사들에 단열창문을 설치하는 등 에네르기를 극력 절약하는 방향에서 현대화를 진행하였다. 이런 공장이야말로 로력 및 에네르기절약형공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의 생산구조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덧따기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실리를 따지면서 실용성있게 하는것이다. 아무리 요란하고 번쩍거려도 실리가 없으면 현대화한 보람이 없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개건해도 생산의 량적 및 질적지표와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서 성 범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수령결사옹위의 견결한 투사들로 준비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김 광 림 찍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당원들과 탄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깊이 체득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탄광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에 대한 학습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도덕의리와 한없이 숭고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여러 위대성도서들에 대한 실효모임도 의의있게 진행하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작품에 담은 예술소품공연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은 이곳 당원들과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향

자력갱생대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간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서

과학적인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평양시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평양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새해전투의 시작부터 드센 공격전을 벌려온 이들은 지난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우승을 하였다. 이들은 더욱 분발하여 공사에 필요한 돌제취를 본격적인 단계에서 몰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으며 언제인입도로공사에서도 련일 눈부신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 성과는 자기 단위의 실정과 공사조건에 맞게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내면서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전투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인 사업기풍과 진취적인 일본새가 안아온 결실이다.

려단은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서 중요한 언제건설을 맡았다. 려단이 공사를 최단기간에 완공하자면 겨울철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끝내야 하였다. 그 관건적고리가 바로 언제의 장석공사에 필요한 돌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이였다.

전기와 설비 등 걸리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또 현재의 력량으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난관에 포로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평양속도가 창조된 수도에서 달려나온 우리에게 이름한 난관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우광철려단장, 강문석정치부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마음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은 돌격대원들과 지혜를 합치면서 돌제취량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 리영철참모장과 선교구역대대의 전투원들이 내놓은 안에 초점이 집중되였다. 그것은 도로공사장에서 자동차의 적재함에 발동기와 이동식압축기를 싣고다니면서 착암작업을 하자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설비들을 제때에 이동시키면서 종전보다 로력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었다. 또한 압축기의 리용률과 동시에 천공속도를 무쩌 높일수 있게 된다.

결국 도로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돌제취량을 현저히 늘일수 있었다.

이것은 혁신적인 방안이였다. 그렇다고 모든 대대들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설비와 로력리용에서 광비를 가져올수 있었다.

바로 이런 때 주도세밀하게 작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공사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대대들에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대중의 열의를 떨어뜨릴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작전할것인가.

현행공사정형과 앞으로 해야 할 건설과제들을 놓고 실리를 하나하나 따져본 일군들은 도로공사의 암반굴착에는 일부 대대들이 이동식압축기로 착암작업을 하고 나머지력량과 착암기로는 채석장에서 돌제취전투를 본격적으로 내밀기로 하였다.

이 결심은 면밀한 타산에 기초한것이였다.

언제건설에서 돌쌓기는 기본공사대상의 하나이다. 려단의 실정에서 이 사업을 시작부터 불이 번쩍 나게 내밀어야 전반적공사실적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그러자면 공사에 필요한 돌을 넉넉히 마련하여야 하였다.

이 방안대로 하면 도로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면서 여기에서만도 적지 않은 량의 돌을 채취할수 있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는 그것대로 작업능률을 높여 돌제취량을 최대로 늘일수 있었던것이다.

과학적인 타산과 옳은 결심채택은 좋은 결과를 낳기마련이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매일 공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일군들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공사실적을 높인 사실도 주목된다.

기술혁신이자 공사속도의 증가이다. 일군들은 문제를 이렇게 보고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려 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자료들을 놓고보자.

락랑구역대대에서는 못쓰게 된 자동차의 판용수로 정대를 만들어 공사에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로력과 시간, 자재들을 절약하면서도 돌제취속도를 2배이상 올릴수 있었다.

또한 만경대구역대대에서는 자동차축전지의 충전기를 새롭게 창안제작하여 공사에서 관건적요소인 자동차의 심동률을 보장하였다. 중구역대대에서는 낮은 전압에서도 쓸수 있는 용접기를, 형제산구역대대에서는 임의의 장소에서 리용할수 있는 휴대용용접기를 창안도입하여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보통강구역대대를 비롯한 다른 대대들에서도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자력갱생기지를 굳은히 갖추어놓고 보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대대가 대대를 돕고 소대가 소대를 도우며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돕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려단의 전반적인 공사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글 리영학
사진 본사기자 김종춘

황해남도일군들과 근로자들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계속 전진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도안의 근로자들이 흙물길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에 들어와 이들은 수십만 ㎥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여 흙물길공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려단의 일군들은 흙물길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본때있게 내밀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선전선동력량을 동원하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도안의 근로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흙물길공사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도안의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적열의를 안고 흙물길공사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었다.

도에서는 굴착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을 보장해주는 등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어 전투를 시작한 이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도안의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흙물길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려단의 일군들은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진행하는 한편 앞세울 때고 달리면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흙물길공사에서 본때를 보이였다.

해주시, 벽성군, 안악군, 재령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많은 토량과 암반을 처리한 기세로 흙물길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었다.

연안군, 배천군, 은률군의 일군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데 맞게 이동식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과 연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강령군, 신원군, 장연군의 일군들은 굴착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흙물길공사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굴착기운전공들은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공사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분초를 조개가며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흙물길공사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결사관철의 3일간

평안북도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평안북도려단에서 물길굴건설을 다그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려단지휘부에서는 모든 대대들을 탐구갱으로 집결시키는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뜻밖의 정황이 발생했기때문이였다. 1사갱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여 여기서 물을 퍼낼수 없었다. 물을 빨리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물길굴건설이 그만큼 지연될수 있었다.

일군들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떠섰다.

이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화선지휘관들처럼 전투적으로 방도를 찾았다. 현실적인 방도는 1사갱과 탐구갱을 관통시키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탐구갱을 통해 1사갱의 물을 자연배수시킬수 있었다.

여기서 급선무는 탐구갱의 하부확장공사를 빨리 진행하는것이였다.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공사인것만큼 력량을 총집중하여 벼락같이 해제끼기로 하였던것이다.

대대들이 긴급출동하였다. 당에 완공의 보고를 올리는 시각을 순간도 늦출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군들과 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 피가 끓어번지였다.

즉시 굴진조와 버력처리조가 편성되였다. 이어 확장공사를 하면서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종전같으면 열흘이상 걸려야 할 진설과제들을 놓고 실리를 하나하나 따져본 일군들은 도로공사의 암반굴착에는 일부 대대들이 이동식압축기로 착암작업을 하고 나머지력량과 착암기로는 채석장에서 돌제취전투를 본격적으로 내밀기로 하였다.

이 결심은 면밀한 타산에 기초한것이였다.

언제건설에서 돌쌓기는 기본공사대상의 하나이다. 려단의 실정에서 이 사업을 시작부터 불이 번쩍 나게 내밀어야 전반적공사실적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그러자면 공사에 필요한 돌을 넉넉히 마련하여야 하였다.

이 방안대로 하면 도로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면서 여기에서만도 적지 않은 량의 돌을 채취할수 있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는 그것대로 작업능률을 높여 돌제취량을 최대로 늘일수 있었던것이다.

과학적인 타산과 옳은 결심채택은 좋은 결과를 낳기마련이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매일 공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일군들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공사실적을 높인 사실도 주목된다.

기술혁신이자 공사속도의 증가이다. 일군들은 문제를 이렇게 보고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려 성과를 안아오게 하였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자료들을 놓고보자.

락랑구역대대에서는 못쓰게 된 자동차의 판용수로 정대를 만들어 공사에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로력과 시간, 자재들을 절약하면서도 돌제취속도를 2배이상 올릴수 있었다.

또한 만경대구역대대에서는 자동차축전지의 충전기를 새롭게 창안제작하여 공사에서 관건적요소인 자동차의 심동률을 보장하였다. 중구역대대에서는 낮은 전압에서도 쓸수 있는 용접기를, 형제산구역대대에서는 임의의 장소에서 리용할수 있는 휴대용용접기를 창안도입하여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보통강구역대대를 비롯한 다른 대대들에서도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자력갱생기지를 굳은히 갖추어놓고 보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대대가 대대를 돕고 소대가 소대를 도우며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돕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려단의 전반적인 공사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날에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글 리영학
사진 본사기자 김종춘

대담한 공법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자강도려단에서

창조형의 실천가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비약이 일어난다.

자강도려단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곳 일군들과 대원들은 기성의 공법들을 대담하게 혁신하여 물길굴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틀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려단앞에는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에서 수백m의 물길굴을 건설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공사를 시작하여 이미 수십m의 명굴건설과 여러개의 잠관설치를 끝냈으며 도갱굴진을 완성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굴착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를 다그쳐 끝내면 물길굴건설을 빨리 완공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굴착장을 위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피복공사를 따라세우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웠다. 그런데 전기가 긴장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전진을 방해하였다.

방도를 모색하면 이들은 기존공법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난관은 이전보다 큰데 그것을 타개해야 할 공법은 구태의연한것이였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것이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호소에 과연 어떻게 화답해야 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니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기성의 공법에 대한 답습이 아니라 새것의 창조가 혁신을 담보한다.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는 열쇠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에 있다.

이것을 절감한 일군들은 공사방법을 새롭게 착상하고 실천해나갔다.

우선 굴착장공사에서 천공배치를 바로하는데 힘을 넣었다. 발파구멍을 뚫는 위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것은 착암시간을 줄이고 굴진속도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중시한 일군들은 경막장에 들어가 암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천공배치를 실리있게 하기 위한 방도를 찾았다. 그리하여 여러개의 구멍을 더 뚫지 않고도 발파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들은 착암공들에게 새 천공배치방법에 대해 알려주는것과 함께 착암각도도 바로 정해주었다. 결과 착암시간을 이전보다 훨씬 줄일수 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전기가 긴장한데 맞게 발동압축설비를 리용하여 착암기를 가동시키는 조건에서 발파구멍수를 줄여 적지 않은 연유를 절약하는것은 물론 설비에도 그만큼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억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 때 더 큰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

이렇게 대담을 든든히 가진 이들은 이동식압축기리용방법도 혁신하였다. 그전에는 이 압축기의 위치를 자주 옮기지 않았다. 그 이동설치에 어지간히 줄이 들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이런 기성의 방식을 깨버리고 압축기설치거리를 줄여 굴진을 하면서 전진하는 착암기에 계속 가까이 접근시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공기압력을 더 높일수 있었다. 결국 종전과 같은 연유를 가지고 착암속도를 높이면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압축기를 접근시켜 리용하면 공기호스도 절약되여 일거량득이였다.

일군들은 시공의 질보장을 위한 대책도 창발적으로 세웠다.

콩크리트피복공사후 양생에 필요한 온도보장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도갱굴진을 완성하여 굴을 관통시킨데다가 사갱들도 있다보니 갱안의 온도가 낮아졌다. 그때에도 이들은 해당위치를 찾아 바람막이대책을 세우는 등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온도보장을 하였다. 그리하여 시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비약에로의 길을 넓게 열어가는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의해 려단의 전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모범선동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상전선의 제일기수가 되여 당정책결사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모범선동원의 영예를 지닌 선동원들을 소개한다.

누구나 먼저 찾는 사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보온직장
제3작업반 보온공 도상일동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보온직장에는 《우리 선동원》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보온직장 제3작업반 보온공 도상일동무이다.

그에게는 잊지 못할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긴장한 로력사정으로 하여 도상일동무는 어느 한 설비의 보온작업을 혼자서 맡아하게 되였다. 그는 보온작업을 잘해보려고 마음먹고 달라붙었다. 진땀을 뿜으며 철판을 재단했지만 오작품이 나왔다. 그는 할수 없이 고급기능공의 도움을 받아서야 늦게나마 작업을 끝낼수 있었다. 작업반원들을 대하는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선동원이 기술기능수준이 낮아 작업반의 짐이 되였으니 사람들을 볼낯이 없었던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도상일동무는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선동원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음을 심각하게 뉘우쳤다.

그는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분발하였다. 그는 보온작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하나하나 습득해나갔다. 필요한 경험들은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실천해보기도 하였다. 그 나날 그의 기술기능수준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언제인가 7호발전기 타빈계통에 대한 보온작업이 긴급과제로 제기되였을 때 그는 자기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한마디로 그의 높은 실력은 작업반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그는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작업반의 박동무가 고압단보온작업을 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에게 작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면서 자기가 도와주겠으니 부족점을 퇴치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도상일동무는 박동무를 끝내 고급기능공으로 키워냈다.

박동무만이 아니다. 작업반에는 도상일동무가 키워낸 보배들이 여러명 있다. 작업반원들은 물론이고 직장사람들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면 도상일동무를 먼저 찾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력으로, 실천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상일동무의 사업을 통하여 선동사업도 높은 실력이 안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된다.

글 및 사진 김혁철

언제나 성공하는 비결

천성청년탄광 10갱 채탄2중대
콘베아운전공 리현선동무

선동원이라면 누구나 대중앞에 나서서 진행한 첫 선동을 잊지 못할것이다.

리현선동무에게 있어서 10여년전에 중대앞에서 진행한 첫 선동은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것인 동시에 귀중한 교훈을 얻은 계기이기도 하였다.

당조직의 신임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그는 온밤 선동준비에 품을 들였다. 첫 선동을 마치였을 때에는 가슴뿌듯한 기쁨에 싸여있었다. 그런데 그의 성과를 축하해주고난 당세포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였다.

《하나하나의 선동에서 다 큰 결실을 얻는다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 가정부인으로서 선동원사업을 하기가 힘치 않을거요.》

웃으며 넘기는 말이였지만 리현선동무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며칠전 중대앞에 긴급하게 제기된 작업에 남먼저 뛰여들지 못했던 일이 불쑥 되새겨졌던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한 선동이 대중의 심장을 얼마나 울렸으랴 하고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이때부터 그는 무슨 일에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앞장서나가는것을 선동원의 본분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선동준비에 뼈심을 들이는데 못지 않게 매사에 이신작칙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언제인가 운반갱을 지나던 때였다. 레루에서 탈선된 탄차를 발견한 그는 주저없이 달려가 어깨를 들이대였다. 함께 가던 중대원들도 지마땀 몸을 내대였다.

탄차를 바로세우고 작업장으로 향한 길에서 한 채탄공이 불쑥 이렇게 말하였다.

《아침에 선동원동무가 애국심은 자기 일터, 자기 기대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고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

그 말이 리현선동무에게 준 충격은 컸다. 선동원의 호소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명중포화로 되자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여야 한다는것을 그는 다시금 새기였다.

그의 선동활동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남보다 실적을 높이려는 생각만 앞세우면서 자재를 아끼지 않는 현상을 실천적모범으로 깨우쳐준 사실, 작업의 여가시간마다 자체의 힘으로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마련함으로써 중대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게 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많다.

다른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달기 전에 자기 심장에 먼저 불을 지핀것, 바로 여기에 리현선동무의 선동이 열번이면 열번, 백번이면 백번 과녁을 명중할수 있은 비결이 있다.

글 및 사진 리춘식

덕을 보는 소형발전소

◎ 전천군 고인협동농장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어디에 가나 저수지와 강하천이 많기때문에 중소규모발전소를 얼마든지 건설할수 있습니다.》

전천군 고인협동농장에 가면 자그마한 발전소를 볼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에 농장에서 자체로 건설한 수로식발전소이다.

총정의 70일전투가 벌어지던 두해전 4월 어느날 농장일군들과 보수분조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한것은 농장마을앞으로 흐르는 신계천의 물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물을 막아 전기를 생산리용하면 좋은줄은 알고있으나 품이 많이 들어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던 그들이였다.

이때 보수분조장 김태건동무가 자기의 안을 내놓았다.

그의 말대로 신계천 한쪽에 일정하게 물길을 내고 거기에 락차고를 조성한 다음 타빈을 설치하면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얼마든지 전기를 얻을수 있었다. 듣고보니 농장의 실정에서는 실천 가능했다.

이렇게 되여 농장에서는 당조직의 지지밑에 발전소건설이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김태건, 권영섭동무를 비롯한 보수분조원들의 역할이 컸다.

보수분조원들은 수력자원이 있는 곳에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라는것이 당정책적요구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앞장섰다.

여러가지 소농기구들을 생산하고 농기계부속품들을 만들어본 경험밖에 없었지만 보수분조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였다. 라명환, 김영성, 엄철화동무들은 건설에 필요한 막돌과 모래 등을 실어왔다.

발전소건설장은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보수분조원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김태건동무는 농장의 더 좋은 래일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보수분조원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창조물에 정성을 기울였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발전기실기초축조도 힘들었지만 타빈제작 역시 난문제였다.

최윤국동무를 비롯한 보수분조원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타빈제작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이 나날에 보수분조원들은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발전설비들도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농장원들이 물길공사에 떨쳐나섰고 군당책임일군도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나섰다.

결국 농장에서는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였다.

시운전을 해보니 결과는 좋았다.

지난해에 농장에서는 수십세대의 살림집들에 대한 조명은 물론 랄곡과 용접, 낟알가공 등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였다. 현재 농장에서는 조성된 수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 농장의 경험은 대중의 지혜를 합치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어디서나 전기를 얻어낼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달음쳐온 값높은 탐구의 자욱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15차 2.16과학기술상수여식에서는 마식령스키장의 바곤식고속삭도의 조종 및 관리체계확립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2.16과학기술상이 수여되였다. 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김덕수동무는 2017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였다.

이곳 전력계통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지난 10여년동안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전력관리체계개발을 비롯하여 많은 대상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벌려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스스로 어려운 연구과제를 맡아안고 간고한 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이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는 시대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의 박동으로 화답해나서는 우리 과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리

10여년전 어느날 대학책임일군의 사무실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정말 왜 해낼수 있겠소?》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꼭 해야 할 연구사업이 아닙니까.》

당시 전기공학부에서 사업하던 김덕수동무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CNC부하전력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맡겨줄것을 대담하게 제기해나섰던것이다.

사실 그가 이 연구과제를 맡아나설 결심을 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력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미치는 후과는 결코 작은것이 아니였다.

전력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자면 중앙에서 도, 시, 군단위로 전력사용한도를 주어 자체실정에 맞게 경영활동을 벌리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자면 시, 군들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전력공급을 하도록 하는 전력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했다.

그는 현실에 나가 연구사업을 하면서 그 절박성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였다.

김덕수동무는 우선 시, 군송배전소들에서 산하변전소들의 전력소비상태를 감시하는 기술수단에 대한 개발로부터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송전선을 통신매체로 리용할 대담한 착상을 한 그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믿음직한 전력선통신장치를 만들어낼 결심을 품고 탐라불어 장치개발에서 성공하고 30대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런데 지금처럼 방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나가다가는 언제 가도 끝을 볼수 없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책임일군을 찾아왔던것이다.

책임일군은 그를 믿고 힘찟 떠밀어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당조직과 진지하게 토론한 후 김덕수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전력계통연구집단을 새로 조직해주었다.

연구집단은 CNC부하전력관리체계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놓고 첫 기술협의회를 열었다. 이때부터 시, 군을 단위로 하는 CNC부하전력관리체계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아직은 성공이 너무도 멀리에 있었다. 개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험난한 탐구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미처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몸이 그대로 조국번영의 밑거름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연구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맹세로 모두의 심장은 세차게 불타올랐다.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이들이 개발해야 하는 CNC부하전력관리체계는 도송배전부에서 맡은 총전력사용한도범위내에서 해당 시, 군들이 자체실정에 맞게 같은 전기를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체계였다.

모든것이 부족한 때여서 측정설비, 시제품제작을 비롯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불리한 조건에서 장기전을 벌리며 연구사업을 하다나니 지쳐 쓰러지는 성원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대학책임일군들은 실태를 료해하고 연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연구사들을 불러일으켜세웠다. 연구집단은 좀들어 제작한 장치가 파괴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장치는 11번째만에야 성공시키면서 이악하게 연구사업을 해나갔다.

특히 송전선과 장치를 련결시키는 문제, 잡음을 이겨내는 기술적문제가 제일 난문제로 나섰다. 이들은 각이한 지역에서 백수십차의 시험을 거듭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렸다.

너무도 힘이 들어 우리가 하는 연구사업이 언제면 빛을 보겠는가고 하는 한 연구사에게 김덕수동무는 절절히 말했다.

《조국에 절실히 필요한 연구사업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중도에서 물러선다면 우릴 두고 누가 진정한 과학자라고 하겠소. 힘을 내서 꼭 성공합시다!》

이들은 완강한 의지로 어려운 탐구의 나날을 이어갔다. 그들속에는 녀성과학자도 있었다.

최영희동무는 교육자인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해마다 머나먼 출장지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자들도 힘겨워하는 키나긴 탐구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이어갔다.

언제인가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한 군송배전소에서의 시험이 련이어 실패하였을 때였다.

집에서 보다 못해 한 일군이 그에게 집을 떠난지 석달이 되여오는데 이제는 돌아가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하였다. 최영희동무는 너무도 안타까와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일군의 말대로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싶었다. 그러나 조국이 나의 연구성과를 기다린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리고 더욱더 이악하게 분발하여 실패의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성공에로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자신보다도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과학자집단의 헌신적인 투쟁은 마침내 귀중한 첫열매를 안아왔다.

숙천군에 대한 전력관리체계 도입시험에서 성공한것이였다. 이들은 그후 여러해동안 과일군 등에로 도입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온 나라에 확대해나가도록 여러차례나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들은 수십개의 시, 군과 군급단위들에 이 체계를 도입한데 이어 그 규모를 넓혀 도를 단위로 하는 CNC부하전력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연구집단이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자강도였다.

자강도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난관돌파전의 앞장에 섰던 도답게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사업에서도 앞장에 서기 위하여 이들을 초청했던것이다.

연구성원들은 도안의 전력계통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즉시 설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종전과는 달리 강습장소를 정하고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선발되여온 백수십명의 기술성원들에게 몇달동안 기술강습을 주고 그들이 자기 단위들에 도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내밀었다.

전력계통연구소의 연구성원들은 한사람이 몇개 시, 군씩 맡아가지고 현지에 내려가 기술지도를 하였다.

그 나날 이들은 사나운 추위를 무릅쓰고 수백리길을 오가며 손발에 동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끼니도 번지면서 도입사업에 온갖 심혈을 쏟아부었다.

하여 끝끝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를 단위로 하는 CNC부하전력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력의 질이 좋아진것으로 하여 보다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면서도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였다.

이들은 계속하여 평안남도와 남포시에로 도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끊임없이 갱신하였다.

처음 자강도에 수십가지의 기능을 가진 CNC부하전력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면 운영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여 몇년후에는 체계의 기능을 100여가지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볼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줄기찬 과학연구활동을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둔 이들은 나라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마식령스키장의 희한한 문명세계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 연구집단의 꾸준한 탐구와 가슴뜨거운 헌신의 자욱이 깃들어있다.

마식령스키장건설과정에 제기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은 당에서 정해준 건설기일, 당에서 바라는 최상의 수준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있었다.

오직 실천적성과로 나라의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적인 마당에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주저없이 나섰다.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이 변전소의 감시조종체계를 자기들이 도입해주겠다며 엄청난 기술봉사비를 요구해나섰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알고 건설장으로 달려온 한 과학자가 있었다.

전력계통연구소 소장 김덕수동무였다.

현장일군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남의것을 들어온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 과제를 자기들이 맡아나서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너무 기뻐 놓을줄 몰랐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이들은 철야전투를 벌리며 변전소의 감시조종체계개발에서 나서는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자체로 보장함으로써 마식령스키장지구에 대한 전력공급과 관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이들은 련이어 내부에비를 탐구동원하여 제작한 수많은 장치들로 변전소들의 선로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삭도와 조명계통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후 공사장에서는 또다시 긴급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눈포설비를 정상운영하자면 이미 건설한 변전소들을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였던것이다.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다시 공사를 벌리는것도 애로였지만 변압기와 배전반, 많은 동력계통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문제는 아주 심각하였다.

그때 현장에 달려간 이들은 마식령지구의 배전계통에 대한 분석을 엄밀히 진행하여 현존변전소들을 이설하지 않고도 눈포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압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이들이 이틀동안에 산출해낸 분석자료가 얼마나 빈틈없었는지 변전소이설을 고집하던 기술자들이 입 한번 벌리지 못했다.

마식령스키장완공을 앞두고 삭도설비의 조종문제때문에 완공을 미루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이들은 자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완공기일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대화봉정점까지 짧은 시간에 오를수 있는 바곤식고속삭도의 기계구성과 동작원리를 해명하여 단 두달동안에 설비조립과 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훌륭히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 기쁨을 드리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들은 이렇게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마식령스키장의 완공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수십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어려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 *

이곳 연구집단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이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철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오랜 세월 완강한 투지를 지니고 조국번영의 지름길을 열어놓는데 적극 기여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 과학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 투쟁본때는 새 세대 과학자들의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여주고있다.

그렇다.

이들과 같은 불타는 애국충정을 지닌 과학자대군을 가지고있어 내 조국의 미래가 그토록 눈부시게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1일에 개막되였던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모든 선수, 감독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훈련열풍속에서 다져온 높은 정신력과 육체기술적, 전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폐막식이 27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종합순위가 발표되였다.

종합 1등을 대성산체육단이, 2등과 3등은 포태산체육단, 룡해울성체육단이 각각 차지하였다.

림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려 모든 경기들을 자신만만하게 운영해온 4.25체육단 선수들이 롱구와 배구종목의 남, 녀경기들에서 우승하였다.

롱구경기에서는 압록강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소백수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2등을,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등을, 배구경기에서는 소백수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각각 2등을, 평양체육단 남자선수들과 기관차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3등을 하였다.

종합 1등을 쟁취한 대성산체육단과 녀자배구경기에서 1등을 한 4.25체육단에 순회우승컵이 수여되였다.

폐막사를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 땅우에 존엄높은 체육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체육인들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이 훈련과 경기들에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세계를 놀래우는 만리마시대의 체육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 상징기발이 내리워졌다.

【조선중앙통신】

북남실무회담 진행

【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측의 제12차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2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우리측이 이번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제12차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 때왕경로와 시기가 반영되여있으며 남측이 편의를 보장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또한 우리측의 이번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고 지적되여있다.

나라의 농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진평 찍음

혁명적랑만에 넘친 투쟁의 노래

강계시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

지난해 11월 장자강기슭에 일떠서고있는 도예술극장건설장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신념과 의지를 더해주는 강계시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이 진행되였다.

이들의 경제선동은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것으로 하여 돌격대원들과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이날까지 강계시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은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건설장과 복부피해복구전투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강계스키장건설장을 비롯하여 각지 건설장들과 도안의 주요단위들을 돌면서 100여차례의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하다면 그들이 각지 건설장들과 도안의 주요단위마다에서 터친 심장의 웨침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입니다.》

몇해전 봄날이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강계시 충성동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태진동무의 가정을 찾았던 도당과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영예군인들로 경제선동대를 무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게 해달라는 제기를 받았다.

영예군인들의 이 불같은 제기는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림혁철동무를 대장으로 하는 18명의 영예군인들과 그의 안해들로 경제선동대가 무어졌다.

이날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은 붉은기앞에서 마음속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않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병사시절의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행군길은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들끓는 건설전투장들과 공장, 기업소, 사회주의협동벌들로 이어졌다.

이 나날 대장 림혁철동무가 당의 신임에 의하여 어느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되여 울성봉동무가 대장사업을 하게 되였다.

대장사업을 인계받은 윤성봉동무는 지나온 경제선동의 나날을 감회깊이 되새겨보며 경제선동활동을 본때있게 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는 우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리며 삶을 빛내이고있는것을 선동주제로 설정하고 경제선동대원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자강도예술선전대 연출가 김용국동무가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는가 하면 류동 68인민반에서 사는 김남희동무도 손풍금을 메고 영예군인들과 함께 경제선동의 길에 나섰으며 강계시인민병원 파장 한성락동무 역시 영예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북부피해복구전투가 진행될 때였다.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장으로 떠나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된 도와 시의 일군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제선동대원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가 진행된다는것을 알면서도 영예군인이라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어제날의 병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여 북부피해복구전투장으로 간 그들은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건설자들에게 넘겨주고 피로도 풀사이없이 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다.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의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경제선동활동은 건설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기세충천하여 분발해나선 건설자들은 힘찬 돌격전을 벌려 피해복구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갔고 영예군인의 안해들은 그들과 함께 입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그후 이들의 경제선동활동은 도체육관건설장, 장자산소년단야영소건설장, 강계스키장건설장, 모내기전투장들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어느날 강계시안의 전쟁로병들과 시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서 경제선동을 진행한 후 특류영예군인 오정현동무가 현장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의식을 가다듬고 자기가 가슴속에 품고다니던 수첩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부탁합니다.》

허나 그는 오늘도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임없이 이어가며 부르는 강계시 영예군인경제선동대원들의 신념과 의지의 노래,

정녕 그 노래는 언제나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노래인것이다.

특파기자 김순홍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이란대사관 연회 마련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이 27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교육상인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 태형철동지,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김정숙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쎄예드 모흐센 에마디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쎄예드 모흐센 에마디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맺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사이의 력사적관계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이란인민과 조선인민의 념원과 지향에 맞게 호상협력을 계속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김영대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희세의 위인이시라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길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인민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협동벌의 미더운 녀성작업반장

강동군 읍협동농장 제4작업반 리은옥동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몇년전 봄이였다.

강동군 읍협동농장의 정범한 농장원이였던 리은옥동무가 제4작업반 반장으로 사업하게 되였을 때였다. 이 사실을 안 농장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럴만도 하였다. 사실 그때 작업반의 형편은 좋지 못하였다. 다른 작업반들보다 농장원들의 열의도 그리 높지 못하였고 물질적토대도 미약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작업반은 농장총화모임때마다 자주 말밥에 오르게 되였고 한해농사총화에서는 해마다 뒤자리를 차지하군 하였다.

하지만 그해 가을 제4작업반의 알곡생산결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정보당 10t을 내고 농장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했던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였다.

언제 한번 농장원들과 얼굴을 붉히는적도 없고 겉보기엔 연약해보이는 녀성작업반장, 이런 그에게 과연 무슨 묘술이 있어 작업반을 추켜세워 첫해에 풍작을 부를수 있었는가.

작업반원들을 위해 남모르게 바쳐온 그의 뜨거운 진정이 다수확의 밑거름이 되였다. 이것이 작업반원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작업반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보약재와 입맛을 돋구는 별식들을 들고 제일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리은옥동무였다. 어느 집에 비가 샌다는것을 알고는 그 즉시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뛰여다닌 사람도 그였다.

리은옥동무는 제대군인이였다. 그는 어렵고 아름찬 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람찬 병사시절의 나날을 추억하며 새 힘을 얻고 더욱 분발하여 일어서군 하였다.

진정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온 작업반장이였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작업반을 이끌어나가는 그의 이신작칙은 작업반원들을 알곡생산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천백마디 말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이 되였다.

새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 그의 열정은 온 작업반에 드세찬 과학농사열풍을 안아왔다.

이뿐이 아니다. 작업반에서는 축산토대도 그쯘히 갖추어놓아 농장원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데서도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한해농사과정은 곧 작업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한집안식솔로 꾸려오는 나날이기도 하였다.

지난해 읍협동농장은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군적인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이런 성과는 리은옥동무와 같이 당과 국가앞에 한개 작업반농사를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헌신분투해온 참된 초급일군들이 많아서 이룩된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리은옥동무는 뜻깊은 올해에 당에서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대오의 기수가 되여 당면한 영농공정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사회주의보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보건사업개선에 큰 힘을 넣어

황해북도에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황해북도가 도안의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을 이룩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면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단순히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과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에서는 일군들의 관점에서부터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일군들속에 당의 보건정책을 깊이있게 해설침투하여 보건사업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보건부문 일군들부터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도의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보건기관들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지에서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며 보건사업발전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보건부문 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한해서는 사소한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엄격히 총화대책하는 강한 규률이 세워지고 일군들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가지씩 맡아 해결하는 기풍이 확립되는 속에 도안의 보건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난해 시,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된 결과 많은 치료예방기관들이 자기 면모들 일신하였다. 도에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첫자리에 놓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꾸리기기준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여기에 력량을 총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매월 화상회의를 통하여 꾸리기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강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상원군인민병원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있게 조직진행하였다.

5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자체의 힘으로 4층짜리 외래병동을 비롯하여 입원병동, 식당 등 연건축면적이 8천여㎡나 되는 군인민병원의 내부를 완전히 일신시킨 상원군일군들의 투쟁은 도안에 자력자강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불씨로 되였다.

연산군, 승호군, 신평군, 서흥군, 신계군을 비롯하여 모든 시, 군의 인민병원들이 현대적미감과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여 지난해말에 진행된 전국적인 관정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사회주의보건사업발전의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간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도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였다.

도의 어느 한 치료예방기관에 현대적인 실험실이 새로 꾸려지고 도인민병원 수술실의 무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의료봉사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뿐만아니라 모든 시, 군들에 이동식렌트겐설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이 결속되고 의약품생산기지들을 개건하여 부족되는 의약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보건사업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뜻깊은 올해를 도안의 보건사업을 보다 한계단 추켜세우는 중요한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일군들의 혁신적인 작전에 의해 지금 도에서는 보건발전을 추동하는 사업들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도의 일군들이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 풀어주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는 속에 도위생방역소개건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도고려병원을 개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자재확보를 비롯한 준비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도의약품관리소에 의약품생산기지를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고 약품의 가지수와 수량을 늘여 도안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에 기초하여 시, 군의약품관리소들의 의약품생산기지들을 개건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가 심화되고있다.

자체로 생산하는 의약품, 의료기구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전시회준비사업, 입원환자들에 대한 무식물공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실무적인 조직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도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보건사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불타는 충정심의 발현이다. 또한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이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보여주고있다.

사고와 실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두고 보건사업의 주인된 관점에서 이신작칙하는 황해북도일군들의 불타는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도안의 보건사업에서는 앞으로도 훌륭한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미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류경치과병원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든 보람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구는 기계, 전기, 전자공학을 비롯한 기술공학의 종합체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구 한대를 만들자면 수많은 원료와 자재들이 있어야 하며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된다. 따라서 의료기구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년전 공장에서는 보건성의 지도밑에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어느날 저녁 흐뭇한 마음을 안고 과학기술보급실로 들어서던 공장의 일군들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한것은 이곳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공장실정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비롯한 짬시간을 리용하여 진행하는것으로 토론하던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사실 공장에는 많은 작업반들이 있었는데 코대가 없이 작업반들이 똑같은 시간에 일하였다. 그러다보니 로동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아야 할 시간이 겹칠수밖에 없었고 드바쁜 생산시간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나 없었던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코대로 일하는 다른 공장들에서처럼 운영시간을 맞추어 생산에 지장을 줄수는 없는것이였다.

하다면 방도가 없겠는가?

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만나 담화하는 과정에 황명성기사장의 머리속에는 한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모든 작업반이 같은 시간에 일한다고 하여 매 작업반원들이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것은 아니였다. 실례로 선반을 돌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서로가 같지 않았던것이다.

어기서 착상이 떠오른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 로동자들의 작업시간을 타산하여 작업의 협조이나 여가시간에 과학기술보급과 기술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운영시간을 현실성있게 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강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발하여 사전에 준비시켰다.

확실히 실효가 있었다. 종업원들은 기술학습을 통하여 자기가 만드는 의료기구에 대하여 보다 깊은 파악을 가지게 되였으며 생산과 기술혁신운동에도 보다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생산에만 신경을 쓰면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사업에 낯을 들리지 못했던 작업반장들부터가 솔선 이 사업에 앞장서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 종업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였으며 공장의 새 제품개발사업에서도 눈에 뜨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종업원들은 태솔력불수강판카얼제생산공정을 확립하였으며 여러 소독기들을 새롭게 창안하여 내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시, 군인민병원들에서 리용할수 있도록 화상렌트겐진단장치를 새롭게 개발하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바퀴달린 의료용접적대를 만들어 치료예방단위들에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많은 의료기구와 새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두고 종업원들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의 덕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혁신과제를 안고 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공장의 이러한 현실이 시사해주는것이 있다.

과학기술보급실로 향하는 종업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는것만큼 기술혁신사업이 활기를 띠고 공장일도 더 잘되여나간다는것이다. 결국 일군들이 과학기술보급실운영만 잘 짜고들어도 자기 단위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의학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에서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이곳 연구집단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민보건실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연구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최신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연구소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예방약과 면역복합물치료용확핀개발, 생물소편제작, 여러가지 비루스성질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확립 등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였다.

특히 이곳 연구집단이 개발한 C형간염예방약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C형간염예방약개발은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연구과정이 헐치 않았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은 연구사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열정을 안겨준 힘의 원천이였다.

연구집단은 막아서는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C형간염예방약을 개발함으로써 C형간염을 철저히 예방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카비루스감염증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전염병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 위한 검사방법들도 확립되였다.

한편 우리 식의 생물소편이 제작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완성된 약물의 안정성을 직접 확인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연구집단의 불같은 노력에 의하여 백혈구감소증, 피부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과 항비루스제, 항암제 등 치료예방사업에서 실천적의의가 큰 새로운 의약품들이 개발되였다.

이와 함께 연구소에서는 의학연구원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종간공장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여 생산되는 의약품들의 품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연구소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보건사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탐구의 날과 달을 이어온 전체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뜨거운 충정,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지난해의 투쟁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맡고있는 연구과제들을 앞당겨 완성하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다.

어느 한 질병에 대한 예방약의 연구,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정확히 진단할수 있게 하는 생물소편 제작, 개발된 의약품들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연구사들의 열의가 높아가는데 맞게 과학연구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우고 그 진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현시기 의학과학기술분야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특히 첨단의학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에로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연구사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세워 그들이 불같은 창조적열정으로 계속 줄탁을 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 높은 의학과학연구성과로 받들어갈 열의드높이 즐찬 과학연구활동을 벌려가는 이곳 연구집단의 적극적인 투쟁은 나라의 보건발전을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증산의 동음높은 전투장의 숨결

합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약품과 의료기구는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이며 의료봉사수준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합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은 말그대로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공장이고 종업원도 그리 많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일터였다. 하지만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영예군인들이 울려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은 그대로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이였고 약동하는 시대의 음향이였다.

얼마전 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그것을 폐부로 느낄수 있었다.

아름드리수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는 공장구내에서 이곳 일군인 한성일동무가 우리를 반겨맞았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술용고무장갑과 혈압계, 청진기를 비롯하여 10여가지나 되는 의료기구들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는것, 지난 수십년동안 공장은 단 한번도 계획을 미달해본적이 없으며 올해 첫달 인민경제계획도 기한전에 완수했다는것…

이렇게 만나자부터 공장에 대한 자랑을 펼쳐놓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절로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중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원료의 주체화를 다그치고 여러 생산공정들을 개조하여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는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생산현장을 돌아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수술장갑작업반이였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흐름선화되여있는 수술장갑생산공정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는 지금 이 작업반에서 무동력에 의한 수동식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고 이야기했다.

거의 마감단계에 이른 이 공사가 끝나면 전기가 없이도 얼마든지 생산을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의 신심에 넘친 모습에서 우리는 비록 혁명의 군복은 벗었어도 마음은 언제나 병사시절에 살며 일하는 공장종업원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우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진기작업반이였다.

여기서는 수입원료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원료의 주체화를 다그치고 여러 생산공정들을 개조하여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는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생산현장을 돌아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수술장갑작업반이였다.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근심도 많았고 앞이 아득하였는데 일단 어려운 고비를 하나하나 돌파하면서 보니 자기 힘이 제일이더라는 작업반원들의 이야기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한편 혈압계작업반에 들어서니 오래동안이나 쓰지 못하고있던 사출기를 자체로 수리정비하여 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다고 작업반원들이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참으로 생산현장들에 즐비하게 쌓여있는 각종 의료기구부분품들마다에 혁명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갈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열의가 그대로 어려있어 그 하나하나를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배심이 든든해있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들려주는 이야기들에서 공장에 차넘치는 자력자강의 숨결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시되여있는 어느 한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 자기 힘에 대한 긍지가 한껏 넘쳐나는 이들의 소중한 창조물들을 깊은 감명속에 바라보는 우리에게 위수룡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왜 조국이 군복을 벗은 우리를 영예군인이라는 고귀한 부름으로 불러주고 앞가슴에 메달까지 달아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병사시절의 그 정신과 본때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길 바라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래일도 병사시절의 한모습으로 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겠습니다.》

어제날의 병사들이 증산의 동음속에 빛내여가는 영예, 그것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떨쳐일어선 자력자강의 강자들이 터치는 삶의 희열이여서 더욱 귀중하게 안겨왔다.

오늘의 벅찬 만리마시대에 떳떳하게 삶과 투쟁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이어가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들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 성 민

불같은 충정과 헌신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

화학공업성 아래단위 일군인 신용남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소개하려는 주인공은 이름있는 과학자도, 온 나라에 소문난 일군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년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비롯한 중요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해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한 일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어떤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를 뜨겁게 새겨안는다.

량 심 의 선 택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공장의 중요제품생산공정앞에 한 사람이 말없이 서있었다.

신용남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공장지배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폭풍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설비들의 조작방법이 까다롭고 제품생산에 많은 량의 중요원료가 필요되는것으로 하여 적지 않게 애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는 앞에 있는 제품을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원료를 쓰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가 자기의 생각을 여러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내비치자 모두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 원료를 리용하는것은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져있었던것이였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사를 벌려놓았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생은 선택의 련속이라고도 할수 있다. 어떤 길을 택하는가, 그에 따라 인생의 짐이 달라진다. 조국의 전진에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자기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가 하는것도 바로 이 선택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신용남동무는 그때처럼 자신의 선택을 놓고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새로운 생산공정의 확립, 그것은 누군가가 걷은 길로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제손으로 개척하며 가야 하는 초행길이였다.

그날부터 신용남동무의 사무실과 가정을 비롯하여 그가 있는 어디서나 밤낮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대학기간에 배운 전공지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화학과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그가 읽은 기술서적들을 쌓아놓는다면 아마도 몇사람의 키를 훨씬 넘을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리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그는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 허심하게 배우기도 하였고 최악의 조건까지 타산하여 합리적인 기술방안들을 제기하였다.

자력갱생, 이 네 글자를 생명처럼 품은 신용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피와 땀은 그대로 새로운 생산공정의 구조물이 되고 부분품이 되였으며 설비가 되였다. 시운전은 단번 성공으로 이어졌다.

신용남동무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중요가공제품의 실수률을 훨씬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도 스스로 맡아나섰다. 헌존생산공정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도면이 5개의 굵직한 지함에 꽉 차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공사의 방대성을 잘 알수 있다.

미나면 출장길을 오가느라, 한치한치 새 기술을 개척하느라 지친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힘을 준 사람은 상급단위의 당일군이였다.

《용남동무도 이렇게 맥을 놓고 주저앉을 때가 있소? 새것을 창조하기가 어찌 쉽겠나. 우리 용기를 내여 함께 일어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민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힘이 생길거요.》

《고맙습니다. …》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울리군 한 당일군의 목소리, 그것은 진정 이들의 투쟁을 한시도 잊은적 없는 고마운 우리 당의 목소리였다.

어느해 겨울 깊은 밤 무게가 수십t이나 되는 설비를 대형추레라로 온반할 때였다. 카파로운 명길에 접어들면서 차가 지치기 시작하였다. 아차하면 품들여 제작한 귀중한 설비가 한순간에 파괴될수 있었다.

《절대로 안돼. 이게 어떤 설비라고!》

벼락같이 웨치며 차에서 뛰여내려 바퀴에 어깨를 들이민 일군, 그는 바로 신용남동무였다. 그의 뒤를 여러명의 일군들이 따라나섰다.

위험한 정황을 극복하고 다시 차에 올랐을 때 한 일군이 신용남동무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밤길을 누가 알아줄가요?》

신용남동무는 대답대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자주 부르군 하는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였다.

비록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는 씨앗처럼 조국을 위해 남모르는 길을 묵묵히 이어가는 신용남동무였다.

드디어 중요제품가공공정이 개건되고 같은 량의 원료로 많은 량의 중요제품을 더 가공해냈을 때에도 신용남동무는 이 노래를 불렀다.

중요제품의 증산,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

가 장 큰 소 원

사람들은 두해전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려진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간고하였고 어떤 신념과 의지를 요구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사실 아크릴산합성기술은 세계적으로 몇개 안되는 나라의 독점물이였다. 어떤 나라의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에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꾸리겠다고 하자 불가능한 일이라고 머리를 흔들었다.

아크릴계칠감생산에서 핵심기술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아크릴산합성기술의 개척은 그만큼 어렵고 간고한 초행길이였다. 설사 생산공정을 꾸려놓았다고 하여도 운영이 까다로와 자칫 잘못하면 폭발로 이어질수 있었다.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이 자기 나라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를 찍은 폭화물까지 우리 기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입의 길을 택하라고 하였겠는가.

그 말을 들으며 신용남동무는 두주먹을 불끈 쥐였다.

(아크릴계칠감생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이다. 그런데 외국설비를 들여다놓고 어떻게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그는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기어이 아크릴산합성기술을 개척할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아크릴산생산공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산화반응기를 제작할 때였다. 반응기의 내부구조에 대한 표상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작하려면 많은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특히 랭각장치를 2중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많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고있었다.

그러한 때 신용남동무는 여러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림장에서 사고하면 방도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남동무는 새 기술개척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과학기술자료들도 밤을 새워가며 탐독하였고 기술자들과 열띤 론쟁도 벌리였다. 그 과정에 반응기출구부위에 한개의 랭각장치만을 설치하자는 기발한 착상도 내놓게 되였다. 그는 늘 작업복차림에 색바랜 운동화를 신고 낮에는 낮대로 현장에 붙어살다싶이 하였고 밤에는 밤대로 제기되는 자체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 출장길에 올랐다. 헐치 않은 적전으로 이어진 그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기에 다 적을수 없다. 다만 그의 수첩에 적혀있는 글 몇토막을 전하려 한다.

《몹시 힘들다. 하지만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건설을 끝내기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

《오늘 평양역에 안해와 딸들이 마중나왔다.

멀리 출장을 갔다가 트렁크에 기술서적만 한가득 가지고왔다고 막내이 리연이가 눈을 흘겼다. 아버지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애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애도 크면 알게 되리라.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고있으며 어떤 삶이 참된 행복인가를 앞으로 자기의 자서전에 적어넣으리라.》

두해전 8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로 이 공정을 보란듯이 꾸려놓고 운영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 신용남동무는 없었다. 그 시각 신용남동무는 중요공장의 기술개건에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출장길에 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불같은 지혜와 열정을 바친 신용남동무의 마음은 그 시각에도 사실상 그이의 가까이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불타는 소원을 간직하고 신용남동무는 오늘도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충 성

신 용 남 동 무 (가운데)

조선의 평화수호, 자주통일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에 집중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가 통이 크게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적조치를 취하여 북남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킨데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진정한 노력에 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을 과단시키려고 무질없이 놀아대면서 망신만 당하고있는 미국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이란의 프레스TV방송,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인도네시아신문 《자까르따 포스트》, 인디아의 ANI통신과 NDTV방송, 지뉴스TV방송, 신문 《힌두스탄 타임스》, 중국의 신화통신, 영국의 BBC방송 등은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국가들이 최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하여 떠들 때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남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온 고위급대표단을 만나시여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북남관계개선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신것자체가 그 성과적개최를 진심으로 바라는 표현이다고 전하였다.

에짚트의 인터네트신문, 통신을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은 미국부대통령이라고 하는 펜스는 고리타분한 제재안을 들고갔으며 남조선대통령이 차린 만찬에 참가하지 않았다, 북남단일팀의 공동입장때는 일어서지 않고 앉아있는 등 《외교적결례》까지 범함으로써 세계앞에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미국외교의 저렬한 수준을 드러내놓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번에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만천하에 과시되였다. 우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열기를 고조시켜놓았다.

짧은 기간에 풀기 어려운 정색국면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를 완화시키고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놓았다.

그 누구도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평화애호적인 성의있는 노력들과 조치들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

북남관계발전을 선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주도적역할을 부정할수 없게 되였다.

이 빛나는 성과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세계의 찬탄을 자아낸 민족적인 사변을 안아올수 있었다.

사실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류례없이 악화된 때에 우리가 그렇게 대범하고 통이 큰 제안을 내놓고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 등은 물론 고위급대표단까지 파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고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남조선당국이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가 험악해지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이 격화된것만 보았기때문이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 어떻게 되여 대결상태에 있던 북남관계가 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지 똑똑히 보고있다. 우리를 늘 색안경을 끼고 보던 서방의 언론들까지도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의 의지에 의하여 북남관계에 훈풍이 불고있다고 인정하고있다.

조선반도에는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미국이 비렬하게도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로 급파하며 정세를 긴장시키려고 부산을 피웠지만 아무것도 걸어먼것이 없다. 올림픽봉화가 꺼지는 즉시 《북남관계의 해빙》도 끝장내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고 고아대고 부대통령이라고 하는 펜스까지 남조선에 기어들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악담질을 해대며 몰상식하게 놀아 세계면전에서 깨깨 망신만 당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남사이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진정을 다 쏟아부었다.

몇해전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군부호전세력에 의하여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도 강한 의지로 평정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바라고 온 겨레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있는가 하는것이 확증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되고 있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온 민족이 바라는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세계의 광범한 언론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순간에 정세를 변화시키시였다고 하면서 조선의 통일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은 세계를 놀래우는 격동적인 사변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렇다. 위대한 헌출위인을 모시여 우리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리 학 남

궁지에 몰린자들의 해괴하고 유치한 궤변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우뚝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기상앞에 맨이 뒤집힌 미국의 트럼프패당이 상식밖의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소란을 피우던 이자들이 최근에는 느닷없이 우리의 핵보유가 조선반도 《적화통일용》이라는 황당무계한 궤변까지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미국가정보국 장관, 미중앙정보국 국장 등 미국의 정보기관 우두머리들은 지지마다 국회청문회를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북조선의 궁극적목표는 핵무기를 앞세워 적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런가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조선의 핵무기는 조선반도를 붉은 기발아래 통일하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지껄여댔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라는 자는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를 통해 《제재수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고있다, 조선반도를 《공산체제로 재통일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세치 혀바닥으로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망발을 다 늘어놓다 못해 이제는 《적화통일용》이라는 낯도깨비수작까지 내댔는 트럼프패들이 참으로 미련하기 그지없다. 이자들의 망동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핵보유가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초래된것이라는 여론이 점차 높아가고 특히는 올해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극적인 화해국면이 조성되는데 급해맞은 나머지 부려대는 단말마적광기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인 우리 핵의 성스러운 사명을 겉고들며 반공화국악선전에 열을 올리는 미국의 더러운 음모책동의 내막은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지금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들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핵위협과 고립압살책동에 매어달려온 미국이라고 하면서 트럼프행정부가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핵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헐뜯으며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정당화해온 트럼프패거리들을 당황망조케 하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국면이 조성되고있는것은 반공화국제재압박의 일층 강화를 꾀하고있는 미국에 달갑지 않은 일로 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감동과 지지를 표시해온 국제사회는 지금 올림픽경기이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것이라고 떠들어대는 미국의 횡포한 위협공갈에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터치고있다.

결국 조선반도의 현정세흐름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에 배치되게 반공화국제재압박에 기승을 부리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선택에 나설 모험적기도까지 드러내면서 긴장격화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트럼프패당은 도리여 세계의 면전에서 평화의 파괴자, 핵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몰골만 드러내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이번에는 너무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유치한 궤변으로 우리의 핵억제력에 먹칠을 하고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우리의 핵을 《적화통일용》으로 매도하여 《동맹국보호》라는 구실밑에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침략무력증강을 합리화하며 남조선내부에 반공화국적대감을 고취하여 북남사이에 해기를 치고 판게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려는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흉악한 속심이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에 그따위 고리타분한 악담질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트럼프패거리들의 추태는 사실상 누워서 침뱉는 격의 어리석은것이다.

날이 갈수록 《북핵위협》소동의 모략적정체와 허황성이 날날이 드러나는 속에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으로 이제는 남조선의 피뢰보수패당이 우려먹던 케케묵은 《적화통일》간판까지 끄집어내여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니 미국의 처지가 얼마나 다급해졌는가 하는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과 모험적인 핵불장난을 제압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 동족을 겨냥한것이 아니다. 우리가 코앞에 있는 손바닥만 한 남조선이나 타고앉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하였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을 《적화통일용》이라고 걸고들고있지만 오히려 남조선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민족공통의 전략자산이라고 자부하면서 안보불안은 동족의 핵이 아니라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핵전쟁광기에서 오고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어디 가서 코페를 무지한 수작질만 해대며 세상을 웃길것이 아니라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더 험악한 궁지에 빠지기 전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 철 준

천추에 용납 못할 반총련테로행위

최근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날로 우심해지는 위협공갈과 테로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심과 치솟는 분노를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무장을 갖춘 2명의 일본우익분자들은 총련중앙회관앞에 나타나 출입문에다 대고 여러발의 총탄을 란사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신변안전이 심히 위협당하고 건물이 파손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비난여론이 아베정권에 쏠리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이치멜리는 중대범죄가 발생한 직접적인 책임은 일본당국에 있다. 그러나 체포된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려놓은 일본당국은 아직까지도 사건을 어떤 개별적인 단체나 개인에 의하여 산생된 범행인듯이 꾸며대면서 아닌보살하고있다. 일본당국의 교활한 책동은 지금까지 총련에 대한 우익깡패무리들의 반인륜적인 테로행위가 감행될 때마다 범죄행위를 묵인조장시키기 위해 써먹던 수법으로서 이제 더이상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우익반동들이 반공화국, 반총련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근거는 너무도 충분하다.

특로된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일본우익단체들의 전국적인 련합회라고 불리우는 극악한 반동단체에서 활약하면서 우익깡패들을 전문적으로 길러내고있는 악질적인 테로분자이다. 총탄을 직접 발사한 범죄자는 바로 이자의 심복졸개로서 악명높은 폭력단에서 각종 테로와 범죄행위를 일삼던 극히 위험한 극우익깡패이다. 보다 싶이 범죄자들은 극우익반동단체와 깊숙이 결탁되여있으며 이 깡패조직의 지령에 따라 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런 범죄단체들이 제세상처럼 날치고있는것은 그것을 극구 묵인비호하는 일본당국의 태도와 떼여놓고 볼수 없다.

지금 일본당국의 반공화국모략책동과 총련조직들과 일군들을 겨냥한 탄압소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특히 반공화국적대감이 골수에 찬 아베정권은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에서 화해국면이 펼쳐지고 조선반도정세에서 완화의 조짐이 나타나자 몹시 불안초조해하면서 그 탈출이로 이만저만한 총련말살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총기테로행위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감행되였다.

지금까지 력대 일본정부들과 그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는 우익반동들이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게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여왔지만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역인 총련중앙회관에 감히 총질만은 못하였다. 이번 총격사건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테로를 조장시키고 평화를 교란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내외언론들은 이번 총탄란사사건을 일본당국이 미국과 함께 대규모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있는 때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이 재침열에 들며 발광하다 못해 우익깡패들에게 무기까지 쥐여주어 총련중앙회관에 총질을 해대는 천추에 용납못할 행위를 저지른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총련에 대한 전면탄압의 전주곡이다.

일본반동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이 반공화국, 반총련말살책동에 광분할수록 테로의 주범, 정화의 파괴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몰골만 드러나고 세계면전에서 더욱 망신만 당하게 될뿐이다.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총격사건의 배후와 진상은 전면적으로 파헤쳐져야 한다. 일본당국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그 주범과 공범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강력범죄와 테로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잔악한 테로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민족의 천년숙적인 섬나라오랑캐들과는 오직 강력한 힘으로 결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일본당국과 우익깡패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과 탄압책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 남 수

남조선의 보수역적무리들을 매장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하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3일 《온 겨레가 단결하여 역적무리들을 매장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해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조치로 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때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그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난것처럼 갖은 추념질을 다 늘어놓으며 그 분위기를 흐려놓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성토하였다.

정신병자인 홍준표를 두목으로 섬기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북과의대결》으로 매도하다 못해 민족공조때문에 《한미동맹》이 제진다고 아부재기를 치며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강행을 법석 고아대고있다.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는 공화국대표단의 활동을 《평양올림픽의 상징적행사》, 《북의 교란전술》, 《한미군사훈련재개를 막고 대북제재와 압박에 틈새를 벌려놓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북의 의도》 등으로 헐뜯으면서 《미국홀대와 북과의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앙탈을 부렸다.

그런가 하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들면서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방북은 핵개발축하사절단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리적행위》라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공화국의 파격적영향력을 차단해보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대결적추태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거세찬 흐름에서 밀려나 파멸의 낭떠러지에 내몰리우고 있는 시대의 오물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성명은 계속하여 원래 남조선의 보수패당에게 있어 날로 고조되는 북남화해와 통일기운은 악몽이고 죽음일수밖에 없으며 그 리유는 친미와 동족대결이 존재리유이고 생존방식이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잔명부지의 출로를 미국의 사타구니와 분렬에 기생하는데서 찾고있는 이자들에게는 공화국예술단의 노래소리와 《우리는 하나다.》는 응원단의 웨침소리, 그에 화답하는 남녀의 합성이 저들의 종말을 선고하는 조종으로 들릴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벌어진 사태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이야말로 민족성원으로서의 체모나 지각, 초보적례의갖은것은 꼬물만큼도 없는 천하의 인간쓰레기들, 동족대결에 환장할대로 환장한 역적무리, 산송장들의 집합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이처럼 발악하고있는것은 동족대결을 일삼지 않고서는 보수의 존재자체가 없어진다는, 민족적화합과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저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불안감과 위구심이 작용하였기때문이다.

또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상전의 흉심을 리용하여 그 앞장에 돌격대로 나섬으로써 상전의 지지를 받아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한 저들의 잔명을 어떻게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실은 민족의 독버섯이고 통일의 암초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을 뿌리채 들어내는것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다시금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과감한 투쟁으로 이 역적무리들을 매장해버리고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더욱 거세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이다.

남조선단체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24일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미국의 새로운 반공화국제재와 북침핵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트럼프가 도전적인 발언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연습을 통해 북을 침략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차오르는 때에 미국이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실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온 민족은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완전히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갈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였다.

회견문은 트럼프가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며 발광하고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라고 락인하고 회견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파쑈적광증은 이남민중과 우리 민족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자기자신을 파멸시킬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트럼프가 전쟁광증을 부릴수록 우리의 반트럼프, 반미반전운동도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트럼프의 오만은 우리 민족을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부르고있다.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서 그를 퇴진시키는것과 함께 다시는 이런 망나니정상배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것이다.

투쟁하는 우리 민중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신문 《보안관찰법》의 완전폐지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2일 《보안관찰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보안관찰법》이 독재 《정권》시기의 악법이며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라고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만난 사람과 날자, 시간, 장소, 려행지 등을 3개월에 한번씩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면 《보안관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질수 있다.

징역형을 살고 출소후에도 형법이 계속되여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그치지 않고있다.

보안관찰기간은 2년이지만 대다수는 매번 갱신되여 10년 혹은 20년동안 보안관찰의 올가미에서 벗어날수 없다.

때문에 보안관찰은 《장살없는 감옥》이자 《끝나지 않는 감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설은 《보안관찰법》은 이미 없어졌어야 할 악법이며 이제는 이 법을 완전히 폐지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월간국제정세개관

만천하에 드러난 평화파괴자, 교란자의 정체

2월에 세계의 이목이 조선반도에 쏠리였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이 파견되고 고위급대표단이 개폐막행사들에 참가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막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 국제사회의 기대에 엄중히 도전해나선자들이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훈풍이 불자 미국의 트럼프패당은 불편한 속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부대통령 펜스의 몰상식한 행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북비핵화는 남조선미국의 공동목표》라고 뚫박으며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심사가 뒤틀린 기색을 보이다 못해 《트럼프가 바라는것은 올림픽봉화가 꺼지는 즉시 남북관계의 해빙도 끝내려는것》이라고 궤변댔다. 남조선을 행각하기 전부터 여러 공개석상에서 올림픽경기대회개막식에 참가하여 조선의 선전공세를 막을것이라느니, 조선정권이 어떤것인가 하는 사실을 상기시킬것이라느니 하는 악담을 퍼쳐대면서 저들의 목적이 반공화국선동을 일으키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남조선당국에 《북측인사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최떠온 수작질까지 늘어놓았다.

한편 우리가 마치도 저들과의 대화에 목말라하는듯 한 어론을 퍼뜨리며 날이 갈수록 유지하기 어렵게 되여가는 미국의 체면을 세워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경기대회마당에 와서까지 대결과 전쟁, 모략광고를 해대는 펜스의 해괴한 꼴을 보며 세계는 침을 뱉았다.

미국것들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나는 즉시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것이라고 하면서 부산을 피워댔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와 그 발전추이를 차단해보려는 불순한 군사적망동이다.

트럼프는 여러 기회에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방안에는 군사적방안과 비군사적방안이 모두 포함된다.》,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떠벌이면서 군사적방법을 선택할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측근들도 《미국은 모든 군사적대안을 보유하고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 외교적압박을 지속할것》이라느니, 《모든 선택안이 탁상우에 있다는것을 분명히 할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여대였다. 호전광들의 입에서는 《북정권이 세계를 위협하고있다.》, 《북이 대화와 협상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스스로 군사적행동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것이다.》는 나발이 거침없이 튀여나왔다.

날로 고조되는 북남사이의 관계개선분위기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트럼프패거리들은 이처럼 분별을 잃고 발광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반동들도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수상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손님이라는 감투를 쓰고 머리를 들이밀고는 우리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떠들어대며 분위기를 흐려놓았다. 아베는 자기가 남조선집권자를 만나 《대북압박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되며 인도주의적협력은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데 대해 명확히 전달할것이라고 고아댔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와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추가조치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것과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성노예소녀상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지어 아베는 남조선이 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나면 즉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야 한다고 분수없이 지껄이였다. 제땅에서 남조선당국에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다 못해 남조선에까지 쫓아와 북남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아베의 언동은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았다.

일본당국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노린 조선의 《미싸일공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인관광객들의 신속한 피난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춘다고 하면서 올림픽경기대회장주변의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대피소들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렸다.

일본국회 중의원은 조선의 《미싸일발사》에 대비하여 수백명의 의원들이 회의장밖으로 긴급히 탈출하는 대피훈련광대극을 벌릴 계획을 세웠다. 간악한 섬나라족속들의 히스테리적발작이였다.

일본경찰당국은 １００여명의 무장경찰들을 내몰아 총련도쿄도본부와 총련일군의 집,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래재단에 대한 강제수색놀음을 벌려놓았다. 또한 우익깡패들을 내몰아 도쿄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 총탄을 마구 란사하게 하는 치떨리는 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총련을 파멸삼아 감행된 광기어린 범죄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행위이다. 총련에 대한 잘부림은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올림픽경기대회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면서 고의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미일호전광들이 《종합방공 및 미싸일방어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은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침략야망에 들떠 무모한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는 미일반동들의 망동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정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조선반도를 둘러싼 이달의 정세흐름은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절요하게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었다.

본사기자 리 현 도

미국의 대수리아정책을 단죄

로씨아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한 국제토론회에서 미국의 대수리아정책을 단죄하였다.

그는 수리아문제해결의 성과여부는 미당국이 수리아를 분렬시키려는 시도를 즉시 걷어치우는데 달려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유프라트강의 동쪽으로부터 수리아국경선에 이르는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정권기관》을 만들어내고 지원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국은 수리아에서 불장난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수리아문제해결의 성과는 로씨아가 무엇을 더 할수 있는가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수리아국가의 분렬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놀음을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리득이 없는 핵합의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경고

이란외무성 부상 아빠스 아라그치가 22일 영국방문과정에 한 연설에서 경제적리득이 없는 핵합의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이란과 렬강들사이에 체결된 핵합의를 아니꼽게 대하면서 이란과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체들에 제재를 가하는 등 해독행위를 일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란핵합의에 대해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외국기업체들이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기 나라는 그러한 핵합의에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과 미국 합동군사연습 획책

이스라엘군이 다음달에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을 계획하고있다고 22일 밝혔다.

연습은 《대공방위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책동은 지역나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3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